‘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로 상향

‘육체노동’ 의 정년이 65세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제까지 60세로 봤던 판례를 30년 만에 변경한 것이라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액의 증가, 보험료 인상 등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머니투데이’ 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직 직업이 없는 어린아이가 나중에 도시 일용직 근로자가 된다고 가정하고 손해배상액을 ‘가동연한 60세’ 를 적용해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이 잘못됐다며 파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 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 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용여건의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대법원은 “그동안 국민 평균여명이 상승했고 1인당 국내총생산이 늘어 경제규모가 4배 이상 커지는 등 생활여건이 급속도로 향상됐다.” 며 “각종 사회보장법령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고 연금수급개시연령도 2033년 이후부터 65세” 라고 판례 변경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교통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피해자가 받게 되는 손해배상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각자 직업에 따라 계속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손해배상액의 증가가 확실시됨에 따라 보험 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노동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계는 정년 연장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임금피크제 등 대비책을 찾아야 할 처지가 됐다. 이제까지 재계는 근속연수와 임금이 연계돼 있는 상황에서 정년이 늘면 임금 부담이 높아져 경영 여건이 어려워 진다면서 정년 연장에 반대해 왔다.

서해5도 어장 ‘여의도 84배’ 확장 야간조업도 허용

한국 정부가 1964년 이후 금지했던 서해 5도(백령도·연평도·대청도·소청도·우도) 야간조업을 55년만에 허용하기로 했다. 조업 범위도 크게 넓어진다. 다만 야간조업 시간과 조업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해상에서 남북의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해군과 해경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20일 ‘이데일리’ 에 따르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해 5도 어장 확장 및 조업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km²에서 245km² 늘어난 1,859km²까지 확장한다.” 며 “1964년부터 금지되었던 야간조업도 55년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한다.” 고 말했다.

이번에 확장된 총규모 245km²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2% 넓이로 여의도 면적(2.9km²)의 84배에 달한다. 1992년 280km²를 확장한 이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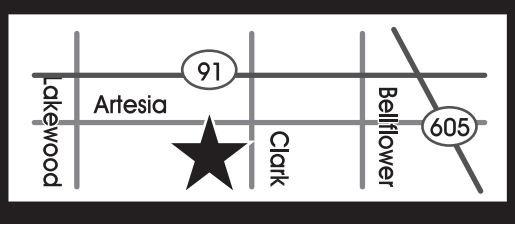
김 장관은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장 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평화가 곧 경제임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했다.

해수부는 어민들이 이번에 확장하는 어장에서 4월 1일부터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3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어장 관리와 조업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수행하고 경비는 현재와 같이 해군과 해경이 맡는다.

해수부는 어장이 큰 폭으로 넓어지고 어업시간도 연장됐지만 아직 어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만큼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어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에 비해 긴장이 많이 완화되고 남북 간에 무력충돌이나 군사훈련도 중단하기로 했지만 평화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장담할 수 없다.” 며 “야간조업을 총 1시간 연장했는데 해군경비정과 병력의 숫자, 해경의 경비인력 등이 제한돼 한계가 있다.” 며 현실적인 어려움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향후 남북평화 정착 및 경비자원 확충 등 서해 5도의 여러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적으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2단계 3단계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웍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Lease Return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